

〈토론문〉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이창기*

제주지역의 항일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이 오래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시기적으로 3·1운동에 앞서서 일어났던 집단시위였으며, 시위의 목표가 뚜렷하였고,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조직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이 운동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일은 매우 값진 일이라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제주학회가 서귀포시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금번 학술심포지엄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에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어서도 안되겠지만 사실이 은폐되거나 그 의미가 축소되어서도 안 된다. 이는 민족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교육적 자산의 손실이며, 참여한 선인들의 고귀한 정신을 모독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건의 실체규명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냉정하고도 객관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네 편의 논문은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값진 수확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유의 연구에서는 사건의 발단과 전개과정의 규명에만 너무 집착하여 그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상황이나 역사적 맥락을 폭넓게 조감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이로 인해서 사건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거나 그 사건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금번의 심포지엄에서는 1918년을 전후

* 영남대 교수

한 시기의 민족운동의 흐름과 종교계의 동향을 거시적으로 조망함과 아울러 참여자들의 성격규명을 위한 미시적 관찰까지 함께 곁들임으로써 1918년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연구의 기간이 매우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성과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자들의 진지한 노력의 덕분이라 믿으며,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 연구가 진행되면서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고 깊이가 더해질 것으로 믿으며, 향후의 연구를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첫째는 사건을 주도한 주체나 중심 인물들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 좀 더 치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 점에 대해서는 불교계가 주도한 운동이라는 견해와 선도교(보천교)가 주도한 운동이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그러한 견해를 뒷받침할 자료의 발굴은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체 자료가 빈곤한 실정이라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염려스러운 바가 적지 않으나 이 사건의 성격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생각된다.

우선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불교 승려 김연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인신 파악이 필요하다. 그의 호적명이 김기인(金基寅)¹⁾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왜 김연일(金延日 金蓮日 金連日)로 이름을 바꾸었을까? 연일(延日)은 그의 본적지인 경북 영일군 동해면 도구리의 바로 이웃 면의 명칭이며, 도구리의 생활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또한 조카 김인수와 정기룡, 강민수, 김용충 등 4명의 영일군 출신자와 함께 입도하여 거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연일과 그의 동료들의 제주 입도 이전의 행적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김연일은 고향에서 멀지 않은 월성군 기림사의 승려였고, 영일군 출신 승려들과 후일 동지적 결속을 다진 승려 방동화는 기림사에서 함께 수행한 도반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림사의 승풍이나 기림사에서의 이들의 행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연일을 중심으로 한 승려들은 선도교 지도자였던 박주석을 영입하여

1) 임혜봉, 제주도 승려들의 항일투쟁, 『순국』 1994년 11월호. p.99.

거사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주석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실이 너무 소략하다. 그가 어떤 이력을 가진 인물이며, 이 거사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좀 더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중요한 연결고리인 박주석의 성격과 역할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 이 사건에서 선도교가 갖는 의미가 한결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중심 인물과 중심 세력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거사의 동기와 목적도 보다 선명해질 것으로 본다.

둘째는 거사에 가담한 다수 참여자들의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그들은 불교 신도였는가, 선도교 신도였는가, 아니면 단순한 지역 주민들이었는가?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떠한가? 그들의 참여 동기와 계기는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재판에 회부된 일부 인사들을 제외하면 남아있는 기록이 거의 없고, 재판에 회부된 인사들의 기록마저도 우리의 분석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런 속에서도 참여자 다수가 거주했던 월평리의 현지조사를 통해서 참여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밝히고자 시도한 김창민 교수의 논문은 매우 값진 것이며, 향후 이 방면의 진실 규명에 커다란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 앞으로 월평리 뿐만 아니라 다수 주민들이 참여한 하원리와 도순리로 조사를 확대한다면 더 값진 자료들이 발굴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셋째는 1918년 당시의 우리 농촌사회에 대한 조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급변 발표에서는 당시의 민족운동과 종교계의 흐름에 대해서만 조명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18년은 <조선토지조사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이며, 이 사업을 통해서 한국 농민들은 기존에 관습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받던 많은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²⁾. 농토로부터 유리되고 삶의 기반을 상실한 농민들이 정치없는 유랑의 길을 떠나기 시작한 것이 이 때부터이며, 이러한 농민들의 몰락상은 제주도의 농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918년 법정사 항쟁에도 이러한 농민들의 고통과 분노가 배경에 깔려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창민의 논문에

2) 신용하, 『조선토지조사사업연구』, 지식산업사, 1982.

서 참여자들이 소외된 기층 농민들이었으며, 유농형 화전민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시간을 두고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다면 그동안 역사의 뒀안길에 묻혀서 일부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만 희미하게 남아있던 '사건'이 역사의 전면에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연구에 관계 당국의 재정적 지원과 연구자들의 중단 없는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